

공개된 정보

2020년 5월 16일 저녁 8시, 유명 연극배우 윤미영의 저택. 어두컴컴한 조리실 안에서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이미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어진 남자가 연신 술잔을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남자의 이름은 김진호. 윤미영의 남편이자 명목상의 저택 주인이다. 다시 술잔으로 뺨어가는 그의 손을 맞은편의 남자가 제지하며 입을 열었다.

“형님, 안주 나오면 드세요.”

김진호를 형님이라고 부른 남자의 이름은 박인권. 윤미영의 매니저이자 비서 같은 존재다. 인권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칸에서 오른 속을 들여다 보던 남자가 덜컥 오븐을 열었다.

“올커니, 다 됐다.”

저택의 전속 요리사인 최종인은 갈색이 돌도록 잘 익은 통닭을 오븐에서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미리 해동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걸렸네. 어서들 드세요. 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종인은 말을 하며 인권을 흘끗 쳐다보았고, 인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이미 인사불성이었다. 종인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서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한 지 20분쯤 지나, 닭구이가 뼈만 남았을 즈음 종인이 밖에서 갑자기 인권을 불러냈다. 진호는 신경도 쓰지 않고 술에만 열중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지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가 미영의 연습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란 진호가 밖으로 뛰어 나가보니, 종인과 인권이 연습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경비실장인 주광일이 경비실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진호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광일이 연습실 열쇠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서둘러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볼썽 낯익은 연습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막다 남긴 듯한 저녁식사가 접시에 놓여있을 뿐.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박인권, 연습실로 저녁식사 가져감
오후 6시 30분	주광일 순찰시간
오후 7시 3분	박인권, 김진호를 불러냄
오후 7시 8분	박인권과 김진호, 조리실에서 술을 마심
오후 7시 12분	최종인, 냉동닭을 가지러 냉동창고로 감
오후 7시 31분	최종인, 조리실로 복귀
오후 8시	주광일, 연습실 앞에 도착. 안에서 대분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 대기
오후 8시 10분	최종인,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0분	박인권,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7분	연습실 안의 목소리가 끊김. 연습실 문 앞에 있었던 박인권, 주광일의 일관된 증언
오후 8시 38분	최종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0분	주광일, 경비실로 이동. 김진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3분	주광일이 가져온 마스터키로 연습실 개방. 윤미영 실종



박인권(36) 남

→ 당신은 범인이다.

* 승리조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본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윤미영의 매니저이자 입주 비서다. 당신은 한때 탐정소설가가, 아니 탐정이 되고 싶었다. 멋진 미스터리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내는 탐정, 그게 무리라면, 하더라도 멋진 트릭의 중심에라도 서고 싶었다. 당신이 미스터리애 빠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스터리 동호회에 가입하면서다. 주완고등학교의 JW미스터리 클럽. 거기서 만난 3학년 선배가 요리사인 최중인이다. 특히 대저택 살인 이야기들은 당신을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 당신은 오래된 고전 탐정소설들에 빠져들었다. 소설마다 쓰인 트릭들을 표로 정리하고, 틀이 날 때마다 자물쇠 풀이에 빠지고는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로 진학한 것도, 의사가 되면 직접 시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후 2013년 '진 병원'에 취직했지만 '환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이유로 1년만에 해고되었고, 그 뒤로도 미스터리애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당신의 꿈은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다. 당신이 여기에 취직한 것도 당신의 꿈 때문이었다. '대저택'이라는 낭만. 게다가 저택의 구성원 모두 저마다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당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일들이 저택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징후들은 당신의 영감과 평기를 부추겼다. 다행히 병원 때와는 달리, 여기서는 고용주의 신뢰를 듬뿍 받았다. 한 달 전 낙석 사건 때도 미영은 오래 함께 일한 집사가 아닌 당신의 편을 들어주었다. 심지어 위로의 편지와, 비싸 보이는 에메랄드 반지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면서까지. 그리고 보니 미영이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뭘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있을 때 남편이 구해주면서부터라고 들었다. 그때의 자신과 겹쳐보이는 건가?

며칠 전, 종인의 은밀한 제안을 받자마자 당신의 머릿속에 완벽한 트릭이 떠올랐다. 당신은 그 트릭을 실험해보고 싶었다.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그 트릭을. 그래서 당신은 종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트릭은 종인의 이 계획 위에서만 성사될 수 있으므로, 종인의 제안은 오늘 밤 미영의 연습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몽땅 들고 도망가자는 것. 해외도피를 위한 항공권도 미리 준비해두었다고 한다. 계획은 간단하다. 먼저 당신이 저녁식사에 수면제를 타서 연습실로 가져간다. 수면제는 종인이 구해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진호를 조리실로 불러내 술잔치를 벌인다. 이것으로 이 저택의 주인 내외는 둘 다 무방비 상태가 된다. 금고의 비밀번호와 재산 목록은 진호가 가지고 있을 것이니, 당신이 진호의 술 상대를 하는 동안 종인은 술 안주로 쓸 냉동닭을 쟁겨 온다는 핑계로 나가서 진호의 방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찾아 빼껴온다. 당신은 이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때마침 김진호도 당신에게 은밀한 제안을 걸어왔다. 미영이 사적으로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져다 달라는 것. 업무용 폰은 U5, 사적 용도의 폰은 U7로 모델이 다르니 구분은 쉽다. 이것도 좋은 제안이다. 이 계획에 있어서, 미영의 저녁식사를 연습실로 가져가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의심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 종인이 약속대로 수면제를 가져다주었지만, 당신은 수면제를 뜯지도 않고 자기 방에 던져두었다. 이 계획에 수면제는 필요 없다. 저녁 6시, 당신은 저녁식사를 들고 미영의 연습실로 들어갔다. 품속에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 미영이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 할 즈음, 당신은 굳이 평소애 하지 않던 질문을 했다.

“자... 빈 접시는 언제 가져다 올까요?”

미영은 당신을 잠시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곧 정해진 대답을 했다.

“1시간 뒤에 오게”

녹음은 이걸로 끝. 하지만 해야 할 대사는 아직 남았다. 미영은 당신에게 할 말이 더 있느냐고 물었고, 당신은 눈치를 보는 척 하다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냉동창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냉동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미영과 종인뿐이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미영은 사라질 것이고, 종인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미영을 냉동창고로 유인했고, 미영은 냉동창고 열쇠를 들고 따라나섰다. 냉동창고 앞에 커다란 대형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당신은 여러 번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 시간 즈음 캐리어 하나가 냉동창고 앞에 놓여있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장면을, 안에 들어있는 건 아마도 고기들이겠지.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미영이 냉동 창고를 열고 들어가자, 당신도 따라 들어갔다.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캐리어를 끌고, 미영의 눈 앞에서 캐리어를 활짝 열어제끼자 아이스팩과 대량의 육류가 후두둑 밖으로 떨어졌다. 미영이 캐리어의 내용물을 들여다 보며 분노에 떠는 사이, 당신은 뒤에 걸려있던 냉동닭을 집어들었다. 하나 남은 닭고기, 오늘밤의 맛있는 술안주. 당신은 냉동닭을 딱 잡고 미영의 뒷통수를 힘차게 가격했다. 쓰러진 미영의 머리를 수없이 내려친 뒤, 당신은 캐리어 안의 내용물을 적당히 비우고 숨이 끊어져가는 미영의 몸을 캐리어에 집어넣었다. 그 후 캐리어를 끌고 냉동창고로 나온 뒤 문은 닫았다. 흥분으로 부르르 몸이 떨렸다. 냉동닭을 선택하길 잘했다. 처음에는 약물을 생각했었다. 당신의 의대 졸업논문 주제이기도 한 에피네프린. 알레르기 환자를 비롯해 다양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40mg 이상을 투여하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은 미영이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에 대비해 자가 주사기인 '에피펜'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병행도구 트릭에 쓰기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냉동닭을 선택했다. '먹어서 없앤다'라는 방법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기에. 게다가 에피네프린이라면 이미 병원에서 많이 써왔다.

이 문을 열 때는 열쇠가 필요하지만, 닫으면 자동으로 잠긴다. 당신은 캐리어를 냉동창고 앞에 놔두고 연습실로 돌아갔다. 어차피 저 캐리어는 알아서 사라질 것이다. 어디가 되었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당신은 연습실의 전화를 이용해 경비실장인 주광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광일이 전화를 받자, 당신은 녹음해둔 미영의 목소리를 재생했다. “1시간 뒤에 오게.”라는 대사를. 그리고 오디오 세트를 켜고 블루투스 연결 항목으로 들어갔다. 역시나 U7이 연결되어 있었다. 미영이 당신과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행운이었다. 당신은 오디오를 재생시켰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대본 연습을 녹음해둔다. 연습이 끝나고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밖에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미영이 대본 연습 중이라고 믿을 것이다. 연습실을 나선 당신은 바로 진호를 찾아가 U7을 건넸다. 하지만 그것은 미영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었다. 데이터를 깨끗이 지워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스마트폰은 나중에 다시 바꿔지면 된다. 당신은 진호와 함께 조리실로 갔고, 종인은 냉동닭을 가져다 간다는 핑계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오늘의 흥기인 냉동닭이 훌륭한 닭구이가 되어 사람들의 입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종인은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엔 나간지 한참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왜인지는 알고 있다. 한참후 종인이 당신을 밖에 불러내어, 연습실 문 앞에 버티고 있는 광일을 손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광일을 쫓아보내겠다고 종인에게 말한 뒤,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광일을 향해 다가갔다.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블루투스의 신호 범위에 가까워진다. 광일의 거의 한 발짝 앞에 다가섰을 때, 당신은 블루투스 리모트 기능을 이용해 오디오 세트를 음소거 모드로 전환했다. 연습실 문 너머에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들었다. 광일은 연습실 문으로 달려가 두드리기 시작했고, 종인도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자, 검증의 시간이다.

• **한달 전의 낙석사건:** 한달 전 당신과 집사가 주차장에 있을 때, 낙석으로 집사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 돌이 등 뒤로 굴러올 때 까지 집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기에 큰 일이 날 뻔 했지만, 다행히 경비원이 달려와 끌어당긴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일 이후에 집사는 이 저택을 떠났는데, 이유는 그때 당신의 행동 때문이었다. 당신은 호기심 어린 미소와 함께 집사를 향해 굴러오는 돌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